

그대로 여여하게 우리는 놓고 가고 있습니다!

21면에서 계속

자도 이 불교에 물 한 방울 넣었다 내 마음으로 안아서 항상 착한 사람 되게 이롭게 해 주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착한 사람도 고정되지 않고 또 악한 사람도 고정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또 바보라고 해서, 거지라고 해서 병신이라고 해서 입신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한 찰나입니다! 그것도 들어가는 게. 그러니 잘나고 도도하고 위대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 찰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보살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어떤 꽃 한 송이도 돌 하나도 그냥 이렇게 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의 스승이 연등(燃燈)으로 화(化)하시고, 연등으로 화해서서 나중에는 그 연등부처님으로 하여금 석가세존(釋迦世尊)이라는 부처님을 증명해 주셨고, 그러니 오늘날까지도 그 석가모니는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이름은 아마도 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모든 밝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절에 다니시면서 "아이고,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떤데..." 이렇게 말 씩씩하지 마시고 그러한 말이 들리걸랑 그저 그 자리에 맡기시고 "그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그것이 또 오래 갈 것도 아니니 달라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으니 그런 걸 개의치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가 행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정말 여러분은 진짜 부처님이 되시고 관세음이가 되실 겁니다.

사대와 오온이 공했다는 말뜻

문 책을 보다 보니까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이 공(空)했는데 무엇을 가질 게 있고 놓을 게 있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 주십시오.

답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말만 알았지 뜻을 모를 때는 안 것 자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작해서 한번 침착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스님이 화두를 쫓다 그러면 이차적으로 이 화두를 풀어서 없게 하고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삼차적으로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일임하고서 앉으나 서나 끊이지 않아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좌선을 해도 이것을 꼭 가지고 '뭇고 뭇고 뭇고'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써 공했기 때문에, 내가 공하고 세상이 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저도 공했고 내가 가질 것도 가진 것도 공해 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점은 뭐냐?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침착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나쁘다 좋다 해왔고, 여러분이 다 움추려두고 있고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 못하고 남한테 이끌려 가는 것도 바로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이 준 화두, 바로 이것을 꼭 쥐고 굴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일 초도 머무르지 않고, 그냥 머물렀다가 돌아가고 머물렀다 돌아가고 이것이 한정 없이, 어느 한군데 고정적으로 국한된 게 없이 전부 변천해 돌아가고 부서져 버리고 상해 버리고, 또 만날 때마다 변하고 또 말할 때마다 떠날 때가 되고 만날 때마다 떠날 때가 되고 만나서 떠날 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공했다는 얘깁니다. 갖가지로 소소영영하게 가지고 소소영영하게 하면서도 공했다는 얘깁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우리가 간다는 얘깁니다. 놓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렇으니 항상 그곳은 비어 있다는 얘깁니다. 마

“
내가 공하고
세상이 공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저도
공했고
내가 가질 것도 가진 것도
공해 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가질 게 하나도 없다.”

음으로 만들어서 지어가지고, 문도 없고 걸릴 것도 없는 것을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큰스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걸 지어놓고는 그거를 놓칠 못하고 가기 때문에, 외려 자기 마음이 자기 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지 못하고 닫지 못하는 그런 이치가 하디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했죠. '참선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주 제 일 등으로 봤죠. 그러면 어떤 것이 참선인가? 참선은 행선도 참선이요 좌선도 참선이요 입선도 참선이요, 모든 행 전부, 일거수일투족 전부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 결계가 되면 한 철 선방에 가서 나아가. 앉아서 좌선을 해야 그것이 으뜸이지.' 요렇게 변명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이. 육신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 마음 떨어지면 코드 떨어지고 입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것을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그렇게 이 육신을 가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마음이 주인공에 모든 걸 일임하는 시켜서 놓는다

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편안한 반면에 반드시 내가 생각을 하면 바로 자(子)가 되는 것이고 생각을 안 하면 부(父)가 돼서, '부와 자'가 되어 버리고, 하는 뜻은 '부는 자로 가면 자가 돼 버리고, 자는 부로 가면 부가 돼 버린다'는 얘깁니다.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음을 가만히 두면 부가 되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부처님이다 이 소립니다. 또 마음을 내고 움추려들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법신(法身)이자 화신(化身)입니다.

내가 움추러들 때는 부처가 아들로 가고,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움추러들면 게 바로 부로, 자부처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게 없는 거라 왔다 갔다 해도 왔다 갔다 함이 없이, 함이 없이 그냥 가고 옴이 없이 그대로, 그대로 자가 될 뻔 자가 되고 부가 될 뻔 부가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 도리를 아실 것 같으면 우리가 수많은 유생(有生)이나 무생(無生)이나 전체, 즉 말하자면 이런 게 있죠. 저 물이나 산이나 들이나 어느 곳을 막론 해놓고 보이지 않는 데 영계, 유행, 유체 또는 세균이나 또 사람들 사는 마음, 천차만별로 마음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주인공에 모든 걸 일임하는 겁니다.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 쳐 들었다고 하니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손가락이 아니라 우주를 든 겁니다. 전체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손 든 것도 방편이나 손 들 것도 없이 내가 '어 이런 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자 바로 주인공과 함께 하는 거죠. '승보(僧寶)도 그러하리라. 불(佛)과 법(法)이 둘이 아닐지언데 승보도 그러하리라. 승보는 그냥 따라가는니라.' 이러거든요. 이 육신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마음이 생기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불과 법과 승보가, 불과 법이 즉, 아버지와 자식이 둘이 아니게 돌아갈 때는 승보도 그러하리라. 몸은 그냥 따라가는니라 이런 거죠.

그렇다면 참, 그 도리를 안다면 어떠한 거든지 못할 게 없고, 어떠한 거든지 주인공이 하는데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남의 거라고 할 것도 없을 겁니다. 모두는 내 것도 아니면서 전체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내 것이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 그러므로써 일체 한생각에는 나도 건질 수 있겠거니와 남도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로수가 돼서 그 감로수로서 양식을 삼는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문 이 어두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내서 삶의 의지처럼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진정한 올바르게 부처님 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요?

답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꼭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갈 때 확신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어떠한 이름으로써 이론으로써 공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역대에서부터, 즉 말하자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고, 어디를 향해 지금 그대로 여여하게 걷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탐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수화 풍을 먹고 산다는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일체 생명이 다 지수화풍에서 생겼고, 그 생명으로 인해 진화가 돼서 이렇게 무정물이나 또, 일체 생물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사라지고 거기서 사라졌다가 다시 뜨고 하는 이 진리, 허공에 곧 꽂힌 한 잎이 바람이 너무 세면 이지러지고, 또 어떠한 개체가 바람을 막아 주면 이지러지지 않고 이리다가 떨어지곤 하죠.

이 모두가 뜬구름 같은 이 환상천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
육신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
마음 떨어지면
코도 입도 다 떨어질 것을
뭐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이 육신을 가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플포기 하나 버리지 않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곤충 하나 버리지 않고 또는 축생 하나 버리지 않고 무정물이나 식물 하나 버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그 내면세계의 한미음 속에 같이 항상 일 분 일 초도 쉬지 않고 함께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같이 운행을 하고 있느냐, 너 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 나가 있긴 있는데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공(空)해서, 그 가운데 무엇이 특출하게 꼭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기 위해서 같이같이 서로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도 죽어야 하고' 했습니. 일체를 보라! 팔계 보라! 어디다 놓느냐? 내가 있으니 상대가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있으니 일체가 있고 천지와도 직결돼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기발전소가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밝은 자기발전소! 그래서 여러분의 자기발전소는 이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면 발전소에서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고 이쪽에서 끌어오는 대로 자

동적으로 전력이 옵니다. 오지만 그 전력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일체의 생활이 참선이며 좌선이라고 합니다. 몸을 풀어야 해서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다 놓게 되면 그것이 좌선이며,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특특한 주관적인 내 중심이 없이 그대로 공(空)에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고 편안한 마음도 편안치 않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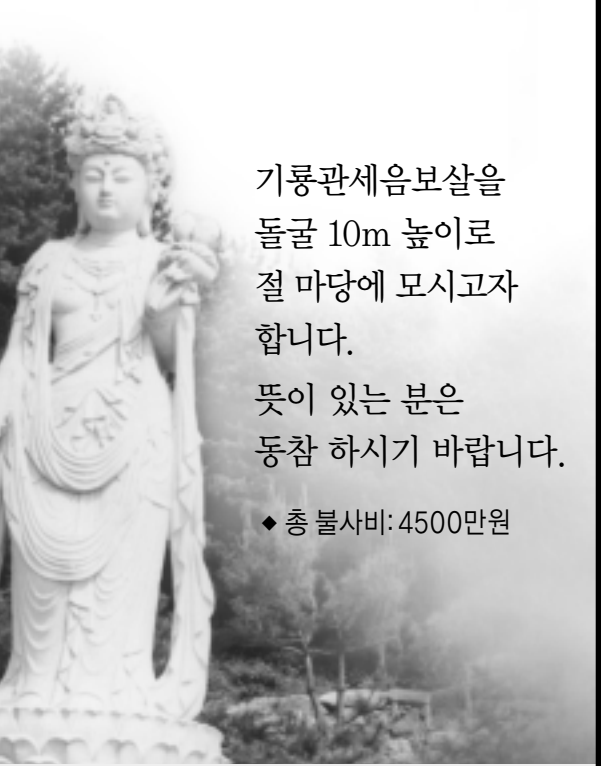
그러니 첫째도 팔계 보라, 일체를, '일체'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 또는 우환과 병고 같은 모든 일체 말입니다. 일체 생활을 닦는 데로 자기 맡겨 놓고 가시라. 이것이 바로 방학자이며 이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말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놓고,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참 좋다 할 때는 감사하게 놓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는 그것도 고정됨이 없으니 '그것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부터는 길을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놓고, 이렇게 해 나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뺐을 때 비로소 과거의 나와, 즉 말하자면 주인공의 성품을 부(父)라고 한다면, 현재에 사는 나의 마음을 자(子)라고 한답니다. 자와 부가 한데 합쳐졌을 때 바로 내 정통의 마음은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견성을 했어도 했던 말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애를 받금 내놓은 거와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애를 내놓은 것을 돈오(頓悟)라고 한다면, 어른이 될 때까지 걸려지는 것은 점수(漸悟)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걸려져서 어른이 된다면 그거는 성불이라고 하겠죠. 어른이 됐을 때.

그러면 어른이 돼 가지고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합류시켜서 우무를, 적용함이 없이 적용할 줄 알아야만 또 그것은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 죽어야 하는데, 죽다 죽어야 한다 내 걸입니다. 거기까지 당도할 때는 어떤 이름이 붙어지느냐 하면 돈수(頓修)가 붙어 집니다. 돈오·점수, 그것이 합류화돼서 회합을 때는 바로 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제쳐 놓고 생활하는 데서 얻어라, 생활하는 데서 당신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모든 것이 벌어졌으니 그 벌어진 생활을 하되, 모든 것이 그렇게 바람결처럼 나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의 그 길을 따르면 울바르게 자력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놓고 참자기의 중심에 의해 이리도록 흔들리지 않고 저리도록 흔들리지 않으면서 갈 길을 똑똑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룡 관음불사 모연문



기룡관세음보살을 돌굴 10m 높이로 절 마당에 모시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분은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 총 불사비: 4500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하안마음선원
주지 덕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031)707-0108

華 陀 禪 院

간 강 질 병 상 담

병원, 한의원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거나 병원치료를 치료되지 않는 난치질병상담. 예를들어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에 침뜸부항 치료를 하는 것은 증상치료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난치질병원 임상담
약사도량 화타선원
문자전화 043)834-7138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74
문경가에서 15분, 청주에서 1시간, 연평IC에서 25분거리
e-mail: kj7675@naver.com

달마선원	보 국 사
도 광 사	도 선 사
혜 각 사	광 원 사
법 성 사	구 도 암
인 각 사	제 왕 사
용 담 사	정 토 사
대 각 사	무 상 사
문 수 사	천 월 사
소 원 사	덕 성 사
용 암 사	영 통 사
팔 정 암	관 등 사

太極四柱 특강 안내

易學은 본래 어려운 학문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古典 命理學자들이 주장하는 格局과 用神 때문이다. 四柱는 단지 陰陽五行의 변화법칙일뿐 格局과 用神을 몰라도 정확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다. 著者 역시 3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해답을 얻지 못했다. 太極四柱는 命理學을 보완한 것이다. 古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지만, 太極四柱는 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 시간씩 독학(獨學)으로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터득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 감정하므로써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스스로 인정할 것이다. 이번에 발간한 增補 太極四柱는 前日에 著者가 출간한 太極四柱를 획기적으로 수정, 보완(修正, 補充)한 것이다. (안내서 무료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 테이프 16개와 教材代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교과는 15만원)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524-2468 / 053)326-4585
(080-322-4684)